

지역 소식통

부안군 행복드림반, 설 명절 생활 불편 100여건 해소

부안군 행복드림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31세대를 방문해 100여건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며 온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전기 누전차단기 교체, 고장 난 전등 수리, 누수파는 수도꼭지 교체 등 주민들의 거주지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의 낡은 전등과 수도꼭지를 교체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드림반과 지역 전기·설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8명이 함께한 이번 활동은 단순한 수리 작업을 넘어 주민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행복드림반이 군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선물해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복지시설 종사자 명절 복지수당 지급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129개소 종사자 11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013년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 예산으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복지수당을 지급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기존 현금 지급 방식을 정읍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해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사랑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1년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하고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수교육비 및 국내연수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선 8기 정읍시정 성과 가속화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 개최... 올 추진 사업 철저한 준비·점검 기회 제공

민선 8기 정읍시정 성과 가속화..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 개최

정읍시가 민선 8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신속한 정책 방향 설정과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이화수 시장 주재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월 정기 인사발령과 연계해 부서장들이 올해 추진할 사업을 철저히 준비·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고회에는 새로 부임한 유호연 부시장이 배석하고 국장, 부서장 및 팀장 전체가 참여해 부서 간 협력과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이 자리를 통해 정읍시는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핵심사업 △일반사업 △공약사업 등 총 375건의 사업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 사업으로는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삼계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기반 조성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농촌협약사업 △연지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정읍역~정읍천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정읍 스포츠 타운 조성 △이왕산 목조전망대 조성 △내장산 자연휴양림 완공 △어라리 기적의 놀이터 조성 △소수총정소 구축 △어린이 전용병동 설치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이화수 시장은 "수립 전 산출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집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올해 첫 출생아 가정 출생축하금 전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일 태어난 올해 첫 출생아 가정 출생축하카드와 출생축하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출생축하카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친필을 담은 메시지 카드이고 출생축하금은 자녀수에 따라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출생축하금 외에도 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원, 마더박스(임신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 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관리비(셋째 이상) 지원, 출생용품비(넷째아 이상) 지원, 임신부 산전 검사비 지원, 대학교 반값등록금 지원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책들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군 보건소에서는 올해부터 임



산부 교통비 지원금 최대 70만원 등 임신·출산 지원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한방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다문화 임신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 및 유관기관에서도 저출산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는데 동진면에서는 지난해 넷째 출생아 가정에서 선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했고 계화면 주민자치위는 지난 6일 계화 희망동이 출생축하금 전달식을 개최해 2024년 출생아 5명에게 출생축하금 각 20만원을 전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성명서 채택

고창군의회, "농업 현장의 의견 반영된 정책 수립할 것"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는 23일 지난해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하면서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수차례에 걸쳐 추진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 벼 재배면적(2024년 기준) 중 12%에 달하는 8만ha를 줄이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목

표치는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할당 농가 선정부터 페널티 부여에 따른 농민 반발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꼼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와관련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폐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쌀 농사는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농업의 근원으로 세계 각국이 식량 보호주의를 강화하며 자국 내 식량 비축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의 주곡인 쌀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존 기반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재배면적 축소가 아닌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공공비축재고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희망 나눔캠페인 지정기탁 목표 초과 달성

정읍시가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서 지정기탁 목표를 117.7% 초과 달성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입증했다.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도해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한다. 캠페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기탁과 각 시군별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정기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서 일반기탁 목표액으로 3억 3000만원을 설정했으나,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으로 45.1%의 모금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취약계층 지정기탁에서는 목표 금액 6억원을 훨씬 넘어선 7억 5000만원을 모금하며 117.7%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는 시의 성실한 참여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나눔 정신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정기탁 목표 초과 달성은 다양한 기부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기부자들은 한 마음으로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았으며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나눔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소통으로 시작하는 새해... 현장의 목소리 담다

정읍시가 새해 첫 소통의 장을 열며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공감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 목표를 공유하고 읍면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보고와 질의응답 방식을 탈피하고 원탁형 좌석 배치를 도입해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대인읍의 '동진강 꽃길 따라 가족걷기 행사' △북면의 '남고등학교 예절학교 프로그램' 확대 △이

평면의 '감사혜효(孝) 꾸러미' 지원 △칠보면의 '동부권 행복공작소' 운영 △소성동의 '양심화단 조성' △농소동의 '추억의 사진전' 등 총 46개 사업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이화수 시장은 "시민을 위한 으뜸행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모든 직원들이 시민중심, 으뜸정읍" 목표를 위해 동반자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1+1이벤트

고창군이 설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위한 1+1 기부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연휴 시작일인 1월 25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3억원(올해 기준) 달성시까지 진행된다. 고창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 50명을 추첨해 기존 답례품 외에 추가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한 3억원 달성 시 기부한 1명에게는 3억원 상당 기념 특별선물로 상하농원

숙박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지역 특산물인 곶감, 고창풍천장어, 고창땅콩, 고창고구마, 고창참깨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지정기부 사업으로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진-영선고 야구부 지원, '고창 청소년 야날장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